

“쾌적” 이미지의 평가 및 인식구조에 관한 연구

양진우 · 노경준 · 안정현
부산발전연구원

A study on Appreciation and Perceptive Structure of “Keijeok” (Amenity) image

Yang, Jin Woo · Roh, Kyong Joon · Ahn, Jung Hyun
Pusan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 appreciation and a perceptive structure of “keijeok” image by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and Factor Analysi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questionnaire survey carried out in Pusan metropolitan city. 15 adjective pairs in the survey were evaluated by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graded 7 ranges from 1(very good) to 7(very bad). A total of 452 samples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and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15 variables comprehended to “keijeok” image were estimated as a positive conception(LT 4.0). What's more, residents may perceive “keijeok” image as intangible and aesthetic aspect such as “fresh”, “pleasant”, “clean”. Second,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s that factor I which express the major conceptual meaning of “keijeok” image tends to have intangible or aesthetic adjective pairs rather than concrete, whereas factor II which has the weaker meaning compared with factor I may represent a functional aspect of “keijeok” image. It can explain that the perceptive structure of “keijeok” image may be largely influenced by subjective sense, then added or concreted with objective conception or environmental situation.

The results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matter which should be reflected at the st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for people's amiable and desirable place.

Keywords : “keijeok” image,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factor analysis,
perceptive structure, intangible / aesthetic / functional aspect

I.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운용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및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에 있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位相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의 향후 환경비전을 정립하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장래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환경관리목표를 정립하는 환경비전은 관련 시책의 추진방향, 구체적인 사업추진 등 환경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환경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12,18)}.

국내·외의 지자체에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립한 환경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제시한 공통적 기본개념의 하나가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1,4,5,10,17)}, 이들 지역환경관리계획에서는 궁극적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계획 및 제반 추진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들은 “쾌적”과 관련된 의미의 용어를 흔하게 구사하고 있다. “쾌적”이라는 단어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어휘, 예를 들어, “쾌적한”, “쾌적하다”, “쾌적하지 못한”, “쾌적하지 못하다” 등과 같은 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쾌적”이란 어휘사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쾌적”이란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패턴을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쾌적”이 정의되어지는 패턴을 통한 인식구조를 유추함으로써 표현되어진 쾌적이미지가 지니는 주관적 혹은 객관적 성향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에 있어서의 쾌적 이미지를 평가하고 쾌적 이미지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D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과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

에 대한 이미지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및 생활여건과도 연관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총괄적 평가와 함께 생활권 역별로도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1) 설문조사

(1) 개요

지역환경이 추구하는 목표이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의 하나인 “쾌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이 어떠한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울러 “쾌적”이라는 이미지는 어떠한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9월 현재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은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을 기본단위로 30명씩 균등하게 할당한 후, 각 구·군별로 인접하지 않는 동·읍·면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총 480명의 설문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5\%$ 에 해당한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훈련과정을 거친 조사가원이 시민을 직접 방문한 후 질의·응답형식으로 1998년 9월중의 10일 동안에 수행하였고, 94.2%의 높은 유효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2) 응답자 속성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51.7%에 해당하는 248명으로 남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중년층이 3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를 차지한 반면에, 60~70대의 노년층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해당하는 13명에 불과하였다. 학력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256명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1).

한편, 부산도시기본계획³⁾에서는 정주단위를 고려한 행정구역, 하천·산세·도로·철도 등의 지형적 여건, 인구분포·토지이용·교통사항 등의 생활여건, 장래의 도

표 1. 응답자의 주요 속성

구 분		표본수(구성비율)
성	남성	231 (48.1%)
	여성	248 (51.7%)
	무응답	1 (0.2%)
연 령	20~30대	337 (70.2%)
	40~50대	130 (27.1%)
	60대 이상	13 (2.7%)
학 력	고등학교 졸업	185 (38.5%)
	대학 재학 및 졸업	256 (53.3%)
	대학원 졸업	35 (7.3%)
	무응답	4 (0.9%)

시발전을 감안한 계획의도적 여건, 도시기반시설의 형평성 확보와 최저기준의 충족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부산시를 중부권(8개 區)·서부권(4개 區·郡)·동부권(4개 區)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부권역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특성을 지닌 기존 도심지역이며, 서부권역은 낙동강을 경계로 공단지역과 농업지역의 특성, 동부권역은 산지를 배경으로 주로 해양관광과 어업기능의 특성을 각각 지닌 지역이다. 이에 3개 권역별 시민들의 쾌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 및 인식구조의 분석을 위하여 권역별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부권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227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부권과 동부권은 각각 111명, 114명으로 집계되었다(표 2).

대상 개념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²⁰⁾. SD法은 Osgood 등의 저서가 발간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보급되었으며, 심리학 분야를 비롯하여 건축계획, 상품개발계획, 인간공학, 가정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13,15)}. SD法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적으로 구성된 다차원 척도상에서 주어진 자극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법의 일종으로, 평가를 위한 척도는 7단계가 일반적이다.

(2) 인자분석(Factor Analysis)

쾌적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한 인자분석은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에 의하여 표시되는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가설적 변수, 즉, 공통인자로 설명함으로써 변수가 가진 구조를 규명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 인자분석과정에서는 변수들간의 관계의 유형을 밝히고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의 묶음을 발견해 내는 일련의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다수의 변수를 보다 적은 수의 변수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자분석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SD法에서 대상으로 하는 형용사적용을 개별변수로 하여 몇 개의 잠재적인 공통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념의 인식구조를 규명하게 하는 인자축의 결정에도 이용되기도 한다^{3,14)}.

2. 연구내용

1) 선행연구의 고찰

의미론 분석의 관점에서 SD法과 인자분석을 연결하여 어메니티, 경관, 심리 등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고 이미지 구조를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승환 등²⁾은 부산시내의 대표적인 경관지역 및 관광 위락지인 해운대와 태종대의 대표적인 어메니티 이미지는 “밝다”이며, 이미지와 4개의 인자(쾌적성, 보건성, 안전성, 편리성)로 특성화시키고 있다. 최중문⁸⁾은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다, 배, 선원의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 바다나 배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선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매우 뚜

표 2. 응답자의 권역별 분포

구 분	표 본 수	유효 회수수 (구성비율)
부산시 전체	480	452 (100%)
중부권	240	227 (50.2%)
서부권	120	111 (24.6%)
동부권	120	114 (25.2%)

2) 분석방법론

(1) SD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쾌적이라는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한 SD法은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의 약자로서 Osgood 등^{19,21)}이 1957년에 제안한 심리측정의 한 방법이다. SD法은 意味論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에 의한 척도를 이용하여 심리실험을 실시하고 그 분석을 통하여 연구

렀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한석과 이명권⁶⁾은 해양경관의 시각적 질을 평가하는 내용에서, SD法에 적용한 35쪽의 형용사 評定항목을 거칠음, 활기성, 호감성, 흥미성, 개방성의 5가지 인자로 범주화하고 있다.

船越의 積田¹¹⁾는 변화가, 주택가, 사무소거리 등 7종류의 街路공간에 대한 심리구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 “질이 좋은 느낌-질이 나쁜 느낌”으로 대표되는 디자인 인자, “즐거운 느낌-따분한 느낌”으로 대표되는 도시적 인자 등의 13가지 공통인자를 추출하였다. 竹田 등¹⁶⁾은 일본, 대만, 한국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구조의 조사에서, 3개국 대학생들의 평가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비생산적”, “느린”, “보수적”, “재미없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2) 본 연구에의 적용

(1) 설문내용

본 조사에서는 부산지역 일반시민들의 “쾌적”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고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그림 1), 설문에 응한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속에서 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 또는 느낌을 설문지상에 제시된 評定항목별로 7단계 평가척도중에서 한가지씩 선택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의 질의문을 제시하여 진행하였다.

(2) 評定항목

본 연구에서는 “쾌적”이라는 단어는 주로 인식자의 주관적 혹은 감성적 상태, 인식되는 대상의 외향적 혹은 美的 특성, 그리고 인식자가 대상에 관계지워지는 기능적 의미의 3가지 개략적 측면의 상호연계 혹은 輕·重의 과정을 통해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다⁷⁾. 評定항목은 이러한 3가지(감성적·美的·기능적)측면을 바탕으로 각각 5쪽의 형용사로 세분지위 설문지를 디자인하였으며, 이는 사전취취조사 및 관련문헌^{13,14,15,19,20,21)} 참조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선정된 評定항목을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표 3), 대상으로부터 인식자(평가주체)가 가질 수 있는 감성적 측면으로 “기본좋은-기본나쁜”, “즐거운-슬픈”

등이 있다. 또한, 대상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美的 측면으로는 “깨끗한-더러운”, “녹색의-적색의” 등이 있으며, 인식자가 대상이 되는 객체를 대하거나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기능적 측면으로 “편리한-불편한”, “새로운-낡은”, “넓은-좁은” 등이 속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評定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17로 산출됨으로서 評定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척도

선정된 評定항목의 평가를 위한 척도는 7단계로 구성하였다. 중앙값인 4를 중심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3단계, 부정적 측면으로 “매우”·“비교적”·“약간”의 3단계 척도를 각각 설정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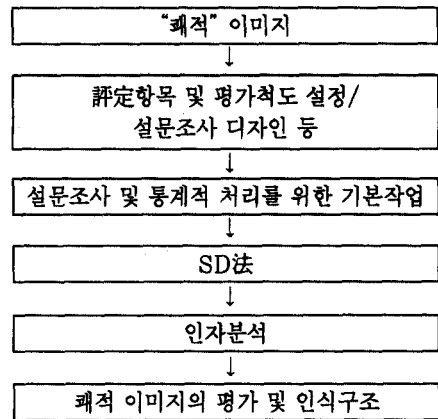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Flow-chart

(4) 통계적 처리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처리를 위한 기본과정을 거친 자료는 SD法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평가하고, 연이어 인자분석을 적용하여 15쪽 개별변수간의 공통인자 추출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인자분석에서 인자추출을 위한 조건으로 고유값(eigenvalue)은 1.0 이상으로 하면서, 주성분법과 varimax회전을 활용하였다.

한편, 評定항목에 대한 변수분석, 인자분석,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별 자료정리 등은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표 3. 評定항목의 3가지 측면에서의 구분

感性的 측면		美的 측면		機能的 측면	
1	상쾌한 - 불쾌한	6	깨끗한 - 더러운	11	안전한 - 위험한
2	기분좋은 - 기분나쁜	7	신선한 - 상한	12	편리한 - 불편한
3	밝은 - 어두운	8	녹색의 - 적색의	13	자유스러운 - 부자유스러운
4	즐거움 - 슬픔	9	자연적인 - 인공적인	14	넓은 - 좁은
5	조용한 - 시끄러운	10	친근한 - 생소한	15	새로운 - 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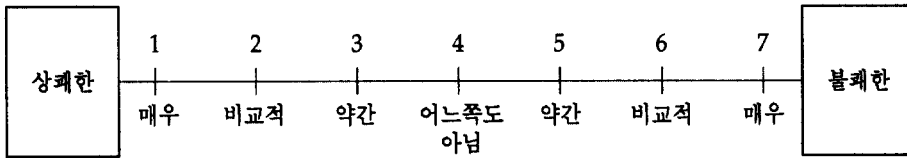


그림 2. 7단계 평가척도(예 : 상쾌한 - 불쾌한)

Ⅲ. 결과 및 고찰

1. 쾌적 이미지의 평가

쾌적 이미지의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15쌍의 형용사 評定항목에 대한 변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4, 그림 3), 부산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쾌적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상쾌한”(1.84), “기분좋은”(1.87), “깨끗한”(1.92)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새로운”(3.06), “넓은”(2.83), “자유스러운”(2.71)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단계 평가 척도의 중앙값인 4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한 15쌍의 評定항목 전부가 4점이하의 긍정적인 견해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매우 긍정적(평가값 GE 1.00~LT 2.00)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 비교적 긍정적(평가값 GE 2.00~LT 3.00)으로 평가된 항목이 11개, 약간 긍정적(평가값 GE 3.00~LT 4.00)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로 각각 집계되었다.

評定항목에 대한 평가값을 기능적, 美的, 감성적이라고 하는 3가지 측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감성적 측면의 評定항목에 대한 평가값의 범위가 1.84~2.23에 있어 나머지 2가지 측면의 評定항목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美的 측면

의 評定항목에 대한 평가값의 범위가 1.92~2.69, 기능적 측면의 평가값 범위가 2.55~3.06으로 각각 평가됨으로서 부산시민들에 있어서 쾌적의 개념은 감성적이면서 美的인 이미지부여가 강한 반면에, 기능적 이미지 부여는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부산시 관내의 3개 권역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도심지역인 중부권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 이미지는 부산시 전체적인 평가에서 나타난 이미지와 유사하게 “상쾌한”(1.81)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며 “기분좋은”(1.83), “깨끗한”(1.83), “밝은”(1.96)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3.05), “넓은”(2.84)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밝은”에 대한 평가값(1.96)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됨으로서, 중부권 지역에서는 보다 밝고 환한 거리 및 주택가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부권 주민은 쾌적에 대한 이미지 평가값이 2.12~3.20의 범위로 평가됨으로서 다른 권역의 쾌적 이미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에 대한 쾌적 이미지 평가값은 3.20으로 3개 권역 전체를 통하여 가장 약한 이미지로서 평가되었다. 또한, 동부권 주민은 “상쾌한”(1.68) 이미지를 가

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기분좋은”(1.73), “깨끗한”(1.77), “신선한”(1.92)의 순서인 반면에, “새로운”(2.93), “넓은”(2.80)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새로운”, “넓은”의 이미지가 비교적으로 강하지 않게 평가된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에 있어 변화정도가 적고 자연적 공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쾌적 이미지의 주요 評定항목으로 볼 수 있는 “상쾌한-불쾌한”, “기분좋은-기분나쁜”, “깨끗한-더러운”의 평가값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자연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며 해안형 관광지로서도 명성이 있는 동부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쾌적에 대한 이미지

(1.68~1.77)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서부권의 경우에는 농경지, 국제공항, 산업공단 등이 입지하여 환경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시민들의 쾌적 이미지가 다른 권역에 비하여 약하게(2.08~2.25) 평가되었다. 한편, 도시중심적 성격을 지닌 중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에 대한 이미지(1.81~1.83)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평가내용으로부터, 대상지 자체가 가진 환경적 특성이 쾌적 이미지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이 쾌적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쾌함, 깨끗함 등의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4. 評定항목별 변수분석 결과(평균, 표준편차)

評定 항목		평균(표준편차)	전 체 (N=452)	생 활 권 역		
				중부권(N=227)	서부권(N=111)	동부권(N=114)
感性的 측면	상쾌한-불쾌한		1.84 (1.27)	1.81 (1.27)	2.08 (1.48)	1.68 (0.97)
	기분좋은-기분나쁜		1.87 (1.21)	1.83 (1.19)	2.12 (1.46)	1.73 (0.94)
	밝은-어두운		2.12 (1.08)	1.96 (0.99)	2.49 (1.21)	2.08 (1.06)
	즐거움-슬픈		2.23 (1.13)	2.12 (1.08)	2.57 (1.31)	2.13 (0.97)
	조용한-시끄러운		2.35 (1.26)	2.29 (1.21)	2.56 (1.52)	2.25 (1.06)
美的 측면	깨끗한-더러운		1.92 (1.20)	1.83 (1.10)	2.25 (1.54)	1.77 (0.93)
	신성한-상한		2.19 (1.34)	2.17 (1.33)	2.51 (1.63)	1.92 (0.91)
	녹색의-적색의		2.27 (1.21)	2.26 (1.24)	2.38 (1.30)	2.21 (1.07)
	자연적인-인공적인		2.67 (1.37)	2.64 (1.33)	2.87 (1.51)	2.52 (1.28)
	친근한-생소한		2.69 (1.26)	2.67 (1.31)	2.98 (1.32)	2.45 (1.01)
機能的 측면	안전한-위험한		2.55 (1.21)	2.49 (1.19)	2.80 (1.29)	2.41 (1.14)
	편리한-불편한		2.62 (1.19)	2.54 (1.18)	2.92 (1.29)	2.48 (1.04)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2.71 (1.17)	2.69 (1.20)	2.91 (1.27)	2.54 (0.96)
	넓은-좁은		2.83 (1.21)	2.84 (1.23)	2.84 (1.27)	2.80 (1.10)
	새로운-낡은		3.06 (1.18)	3.05 (1.19)	3.20 (1.26)	2.93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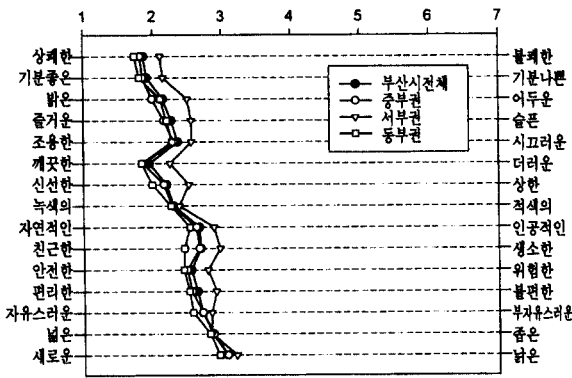


그림 3. 評定항목별 평가값 profile

2. 쾌적 이미지의 인식구조

쾌적 이미지에 잠재하는 기본적인 차원(공통인자)을 추출하기 위하여 15개의 개별변수(評定항목)를 바탕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부산시 전체적으로 3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 즉, 15개 변수는 3개의 인자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들 3개 인자의 설명력은 63.8%이었다. 또한, 3개의 인자중 부산시민들의 쾌적 이미지의 인식에 있어 구조적 특성을 주도하는 차원은 제1인자이며, 나머지 인자는 小因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인자축은 “기본좋은-기본나쁜”, “상쾌한-불쾌한”, “깨끗한-더러운”, “조용한-시끄러운”, “녹색의-적색의”, “신선한-상한”, “밝은-어두운”, “즐거움-슬픈”, “자연적인-인공적인”의 9개 변수로 대표된다. 또한, 제1인자축의 변수들은 0.861~0.475의 비교적 높은 인자부하량(factor loading)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 7.162, 공통변수 47.7%로 설명되었다.

15개 개별변수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0%가 제1인자축을 이루며, 쾌적 이미지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 변수를 살펴보면, 9개 변수 모두가 구체적인 환경에 관한 묘사라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즉, 앞서 언급되어진 감성적 측면 혹은 美的 측면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기분의 좋고 나쁨, 상쾌하고 불쾌함, 즐겁고 슬픔 따위의 인식주체의 상대나 감정에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변수들인 것이다.

이에 반해, 제3인자축으로 갈수록, 이러한 개념은 보다 구체화되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편리하고 불편함, 넓고 좁음, 안전하고 위험함, 더 나아가 자유스럽거나 부자유스러움에 이르기까지 인식자 개인의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참여하여 의미부여가 능동적인 변수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인자축은 “새로운-낡은”, “편리한-불편한”, “넓은-좁은”, “안전한-위험한”의 4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0.756~0.562의 비교적 높은 인자부하량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 1.382, 공통변수 9.2%로 설명되었다. 또한, 제3인자축은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친근한-생소한”의 2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0.813~0.652의 비교적 높은 인자부하량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 1.033, 공통변수 6.9%로 설명되었다.

부산시 관내의 3개 권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 도심지역인 중부권에서는 3가지 범주로 규정되었으며 이들 3개 인자의 설명력은 61.4%이었다. 제1인자축은 “깨끗한-더러운”, “기본좋은-기본나쁜”, “상쾌한-불쾌한” 등의 7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49~0.560, 고유값 6.668, 공통변수 44.5%로 설명되었다. 또한, 제2인자축은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신선한-상한”, “친근한-생소한” 등의 5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787~0.482, 고유값 1.436, 공통변수 9.6%로 설명되었다. 제3인자축은 “새로운-낡은”, “넓은-좁은”, “편리한-불편한”의 3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01~0.571, 고유값 1.113, 공통변수 7.4%로 설명되었다.

서부권 지역 주민에 있어 쾌적 이미지에 내재하는 공통인자는 2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2개 인자의 설명력은 65.6%이었다. 제1인자축은 “깨끗한-더러운”, “신선한-상한”, “기본좋은-기본나쁜” 등의 7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28~0.662, 고유값 8.756, 공통변수 58.4%로 설명되었다. 제2인자축은 “새로운-낡은”, “넓은-좁은”, “친근한-생소한” 등의 8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10~

0.584, 고유값 1.086, 공통변수 7.2%로 설명되었다.

동부권지역 주민들의 쾌적 이미지는 4가지 인자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들 4개 인자의 설명력은 66.4%이었다. 제1인자측은 "기본좋은-기본나쁜", "상쾌한-불쾌

한", "깨끗한-더러운" 등의 7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56~0.590, 고유값 5.540, 공통변수 36.9%로 설명되었다. 제2인자측은 "새로운-낡은", "편리한-불편한", "밝은-어두운" 등의 5개 변수로

표 5. 권역별 인자분석 결과

구 분		부 산 시				중 부 권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感性的 측면	상쾌한-불쾌한	0.856	0.203	0.173	0.805	0.797	0.405	0.073	0.806
	기본좋은-기본나쁜	0.861	0.224	0.165	0.819	0.820	0.378	0.089	0.824
	밝은-어두운	0.634	0.467	-0.058	0.623	0.668	0.091	0.213	0.500
	즐거움-슬픈	0.585	0.247	0.376	0.545	0.462	0.543	0.093	0.517
	조용한-시끄러운	0.721	0.267	0.185	0.626	0.722	0.159	0.202	0.587
美的 측면	깨끗한-더러운	0.835	0.340	0.057	0.816	0.849	0.185	0.193	0.792
	신선한-상한	0.661	0.072	0.490	0.683	0.425	0.659	0.063	0.619
	녹색의-적색의	0.707	0.041	0.368	0.637	0.563	0.547	-0.011	0.616
	자연적인-인공적인	0.475	-0.012	0.358	0.354	0.442	0.482	-0.084	0.436
機能的 측면	친근한-생소한	0.271	0.273	0.652	0.574	0.212	0.644	0.224	0.510
	안전한-위험한	0.503	0.562	0.231	0.622	0.560	0.283	0.470	0.615
	편리한-불편한	0.294	0.670	0.029	0.535	0.384	0.074	0.571	0.479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0.122	0.267	0.813	0.748	-0.041	0.787	0.362	0.753
	넓은-좁은	0.227	0.642	0.284	0.565	0.202	0.276	0.635	0.520
새로운-낡은	-0.034	0.756	0.265	0.643	-0.032	0.032	0.801	0.644	
고유값(eigenvalue)		7.162	1.382	1.033		6.668	1.436	1.113	
부산의 백분율(%)		47.747	9.212	6.886		44.453	9.570	7.417	
누적백분율(%)		47.747	59.960	63.845		44.453	54.023	61.440	
구 분		서 부 권			동 부 권				
		요인1	요인2	h ²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²
感性的 측면	상쾌한-불쾌한	0.775	0.454	0.808	0.809	0.204	-0.100	0.143	0.726
	기본좋은-기본나쁜	0.792	0.449	0.828	0.856	0.221	-0.013	-0.112	0.794
	밝은-어두운	0.535	0.593	0.637	0.484	0.637	-0.202	0.128	0.698
	즐거움-슬픈	0.523	0.627	0.666	0.665	0.264	0.244	-0.254	0.636
	조용한-시끄러운	0.758	0.494	0.818	0.590	0.023	0.277	0.475	0.651
美的 측면	깨끗한-더러운	0.828	0.412	0.855	0.735	0.439	-0.138	0.131	0.769
	신선한-상한	0.821	0.334	0.786	0.705	-0.087	0.403	0.071	0.672
	녹색의-적색의	0.738	0.393	0.699	0.638	0.027	0.061	0.438	0.603
	자연적인-인공적인	0.662	0.047	0.440	0.013	0.181	0.082	0.823	0.718
機能的 측면	친근한-생소한	0.325	0.650	0.528	0.021	0.303	0.674	0.153	0.570
	안전한-위험한	0.480	0.630	0.628	0.383	0.542	0.390	0.162	0.619
	편리한-불편한	0.228	0.584	0.393	0.171	0.716	0.077	0.129	0.656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0.305	0.590	0.441	0.042	0.131	0.858	0.017	0.755
	넓은-좁은	0.368	0.720	0.654	0.098	0.601	0.383	0.020	0.517
새로운-낡은	0.073	0.810	0.661	0.012	0.728	0.371	-0.003	0.668	
고유값(eigenvalue)		8.756	1.086		5.540	2.093	1.248	1.079	
부산의 백분율(%)		58.370	7.238		36.932	13.952	8.318	7.192	
누적백분율(%)		58.370	65.608		36.932	50.884	59.202	66.393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728~0.542, 고유값 2.093, 공통변수 13.9%로 설명되었다. 제3인자축은 “자유스러운-부자유스러운”, “친근한-생소한”의 2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들 변수들은 인자부하량 0.858~0.674의 매우 높은 인자부하량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 1.248, 공통변수 8.3%로 설명되었다. 제4인자축은 “자연적인-인공적인”의 1개 변수로 대표되며, 이 변수는 인자부하량 0.823, 고유값 1.079, 공통변수 7.2%로 설명되었다.

이상의 내용분석으로부터, 쾌적이미지를 인식함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식자에게 형성되어지는 느낌이나 감성이 인식구조의 우위를 점유하여 개념의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에 접근하여 인식되는 대상에 인식자가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쾌적 이미지는 인식자 주관적 이미지의 바탕 위에 덧붙여 첨가 혹은 변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대상 혹은 대상지의 쾌적성은 그 자체의 물리적·기능적 강약을 인식자에게 부여하기 이전 인식자의 개별적 성향이나 기분, 감성적 차이 등에 우선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과제

“쾌적” 개념은 지역환경관리계획상의 환경비전의 주요 기본개념으로 정립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일반시민들도 용어의 구사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쾌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고 그 이미지의 인식구조를 분석한 결론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지다.

1. 15쌍의 형용사로 설정된 評定항목을 SD法에 적용하여 부산시민들의 쾌적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상쾌한”, “기분좋은”, “깨끗한”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넓은”, “자유스러운”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에 있어 쾌적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감성적 측면과 美的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부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부권과 동부권 주민은 “상쾌한”, “기분좋은” 등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낸 반면에, 서부권 주민은 전체적으로 다른 권역보다 약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서부권의 경우,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어느 특정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쾌적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이 쾌적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쾌함, 깨끗함 등의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2. 評定항목을 개별변수로 하는 인자분석을 적용하여 부산시민들의 쾌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구조를 파악한 결과, 총괄적으로 시민들의 쾌적 이미지는 3개 인자로 그 구조적 특성이 집약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분의 좋고 나쁨, 상쾌하고 불쾌함, 즐겁고 슬픔 따위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식주체의 상태나 감정에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감성적 측면 혹은 美的 측면의 개념인 제1인자축이 부산시민들에 있어 쾌적 이미지의 구조적 특성을 주도하는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3인자축으로 갈수록 편리하고 불편함, 넓고 좁음, 안전하고 위험함, 더 나아가 자유스럽거나 부자유스러움에 이르기까지 인식자 개인의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참여하여 의미부여가 능동적인 변수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을 궁극적인 환경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환경행정의 수행에 있어, 과연 시민들의 쾌적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정립을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반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단계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할 요인의 한가지일것으로 사료된다.

4. 일반시민이 지니고 있는 쾌적 이미지를 평가하고 그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 내용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1회만의 연구로는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고찰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쾌적 이미지의 평가를 위한 評定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시민층의 의견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쾌적 이미지라고 하는 심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시간, 장소 등의 여건에 따른 검토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경기도, 1997,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2. 김승환 · 변문기 · 양위주, 1990, 부산시 도시 어머니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1) -해안형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연구보고, 13(1): 77~98.
3. 부산광역시, 1996, 부산도시기본계획
4. 부산광역시, 1998, 부산광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5. 울산광역시, 1997, 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 (1998~2002)
6. 이한석 · 이명권, 1998, 해양경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학회, 12(2): 349~361.
7. 임승빈, 1986, 환경심리 · 행태론 : 환경설계의 과학적 접근 : 보성출판사, 367p.
8. 최종문, 1991, 청소년의 해양에 관한 관심도의 분석적 연구, 한국해양대학 공학석사학위논문
9. 홍두승, 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419p.
- 10.福岡縣, 1995, 福岡縣環境總合基本計劃
11. 船越徹 · 積田洋, 1986, 街路空間における空間構成要素の分析(心理量の分析) - 街路空間の研究(1) -,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327(재인용).
12. 阿部孝夫, 1986, 地域環境管理計劃の理論と手法, ぎょうせい, 229p.
13. 岩下豊彦, 1987, SD法によるイメージの測定, 川島書店, 204p.
14. 日本建築學會, 1994, 建築 · 都市計劃のための調査 · 分析方法, 井上書院, 244p.
15. 長町三生, 1992, 生活科學のための人間工學, 朝創書店, 192p.
16. 竹田久美子 外 4人, 1991, 日 · 臺 · 韓大學生の老人に對する態度と老後責任意識に關する研究(第3報) - 大學生の老人イメージ -, 日本家政學會誌, 42(5): 405~413.
17. 川崎市, 1994, 川崎市環境基本計劃
18. 環境廳企劃調整局, 1986, 地域環境管理計劃 計劃策定の手引き, 公害研究對策センター, 188p.
19. James, G. S. and C. E. Osgood, 1969,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Aldine Publishing Company, 681p.
20. Kempson, R. M., 1979,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 216p.
21. Osgood, C. E., G. J. Suci and P. H. Tannenbaum,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 Illinois Press.